

기성용 “8월부터는 출전가능... ‘절친’ 이청용 맞대결”

몸상태 완벽하지 않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복귀할 것

“과정 아쉬웠지만 지금부터 중요... 돌아올 수 있어 기뻐”

11년 만에 FC서울로 돌아온 기성용(31)은 8월부터 경기장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성용은 대표팀 복귀에 대한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입장과 함께 당장은 고사했지만 가능성을 열어 줬다.

FC서울은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 기자회견장에서 기성용 입단식을 진행했다.

임태진 사장은 기성용에게 등번호 8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건네며 복귀를 축하했다.

이날 입단식에는 100명이 넘는 취재진이 찾아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지난 3월 축구협회에서 진행한 이청용의 울산현대 입단 기자회견 이상의 취재진이 찾아와 그때보다 카메라가 더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입단식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성용은 “이적 과정은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 돌아올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 내 가장 큰 목표”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서울에서 프로에 데뷔한 기성용은 2009년 셀틱(스코틀랜드)으로 이적했다.

이후 잉글랜드와 스페인 등에서 활약한 뒤 11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왔다.

기성용은 “유럽에 있으면서도 K리그는 늘 마음 속으로 꿰뚫던 곳이다.

내가 그레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자신이 있을 때 돌아오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금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 당장 기성용의 몸상태는 완벽하지 않다. 잔부상도 있고 무엇보다 1년 동안 제대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기성용은 “지난 1년은 내 축구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었... 하지만 부상 정도는 많은 분들의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면서 “지금은 밖에서 라닝도 한다. 경기 전에 언제 될지는 팀 훈련에 합류해 봐야 알 것 같지만 8월 정도에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계획을 설명했다.

더불어 “몸 상태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경기 감각이나 체력적인 부분을 끌어 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복귀하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몸 상태가 완벽해 질 것인지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몸 상태가 완벽히 돌아오면 팀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다”고 전했다.

기성용의 복귀로 현재 K리그 11위에 머물고 있는 서울은 반등을 기대하게 됐다.

기성용은 “팀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실력과 선수들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



프로축구 선수 기성용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인터뷰실에서 열린 FC서울 입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울이 K리그 상위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표팀 제의가 오면 복귀할 생각이 있느냐 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민감한 질문”이라고 웃었다. 이어 “현재 대표팀은 잘 하고 있고, 후배들도 잘 성장하고 있어서

복귀에 생각한 적은 없다”면서 “몸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경쟁력’은 걱정하지 않는다. 내 몸 상태가 좋고 대표팀이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복귀 이야기가 나온다면 고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8월 30일 예정된 ‘절친’ 이청용(32·울산)과의 맞대결에 대

해서는 “어린시절부터 함께 생활 하면서 마무리를 함께 하자고 했는데, 같은 팀에서 뛠 수 없어 안타깝다”면서 “청용이는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친구다. 울산전은 내게 특별한 경기가 될 것 같다. 출전하고 싶은 경기”라며 뛰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남, 브라질 그레미우 공격수 에르난데스 영입

유연함·돌파력·결정력 갖춘 자원



전남드래곤즈가 공격력 강화를 위해 브라질 그레미우에서 에르난데스를 영입했다.

에르난데스는 1999년생으로 183cm 신장에서 뽑여져 나오는 유연함, 돌파력, 결정력을 갖춘 자원이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

하며 좌우 윙포워드, 공격형 미드필더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연계, 볼터치, 패싱력도 겸비했다.

특히 에르난데스는 사카에누타에서 최고 윙방주로 이름을 날렸다. 2019년 그레미우 유소년 팀에 스카웃 되었으며, 2020년 그레미우 1군 계약을 한 마라가 촉망되는 윙방주다.

에르난데스는 그레미우에서 브라질 1부인 세리에A 데뷔를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리그가 연기되었고 될 수 있는 클럽을 찾던 중 K리그로 행선지를 돌렸다.

지난 6일 광양에 도착한 에르난데스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쳤

다. 이후 메디컬 테스트도 이상 없이 통과했다.

전남은 에르난데스 합류로 측면 공격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더불어 현재 부상 중인 추정호, 임찬율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에 합류한 에르난데스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먼저, K리그에서 뛠 수 있게 기회를 준 전남 드래곤즈에 너무 감사하다. 전남 드래곤즈를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 경기 최선을 다할거고, 골이 아니면 어시스트로 꼭 팀에 도움을 주겠다. 팀이 꼭 1부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경주시청 선수들의 고백 “하루도 안 맞은 적이 없었다”

최속현 청문회서 진술 나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도환 경주시 선수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최속현 선수의 동료들이 감독 등에게 “하루도 안 맞은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철인 3종 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속현 선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남자 선배 김도환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 선수들의 자체조사 진술서를 토대로 김규봉 전 감독의 폭행 여부를 질의했다.

김도환은 “상습 폭행이 있었나”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하루도 안 맞은 적이 없었다. 계속 도망가고 싶다는 말을 했나”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김도환은 2017년 숙소에서 팀 닥터인 안주현씨가 김규봉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또 또한 안씨에게 한 시간 가량 폭행을 당했고 김규봉 감독이 옆에서 폭행을 교사한 것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임오경 의원은 “김규봉 감독과 안주현씨는 폭력적 기생 관계”라며 “불이 켜지면 다 숨어버리는 체육계 마귀벌레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박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문체위위원장도 “선수들이 안 맞는 날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가 안타깝다”고 지적했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기회에 체육계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LA 다저스, MLB.com 선정 파워랭킹 1위

‘데이비드 프라이스’ 결장·‘워커 블러’ 준비상황 완벽하지 않지만 여전히 1위



LA 다저스 워커 블러

LA 다저스가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이 선정한 파워랭킹 1위라는 분석과 함께 2020

시즌에 돌입한다. MLB.com은 21일(한국시간) 2020시즌 메이저리그 개막을 앞두

고 최종 파워랭킹을 발표했다. 다저스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파워랭킹 1위를 마크했다.

MLB.com은 “데이비드 프라이스가 이번 시즌을 결장하고 워커 블러의 준비 상황이 완벽하지 않지만 다저스는 여전히 파워랭킹 1위”라고 밝혔다. 매체는 “그렇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류현진, 마에다 겐타, 리치 힐 등이 떠난 선발진은 시즌을 진행하며 틀을 맞춰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타선은 매우 위력적이고 볼펜의 상태도 좋다”고 설명했다.

뉴욕 양키스가 2위다. MLB.com은 “개막 지역은 양키스에게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며 “애런 저지, 지안카를로 스탠튼 등은 24일 개막전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게릿 콜, 제임스 팩스턴, J.A. 햅, 조던 몽고메리 이어지는 선발진은 견고하다. 하지만 다나카 마사히로가 뇌진탕에서 아직 회복 중이어서 시즌 초반 선발진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세종필드골프클럽과 2년간 스폰서십 계약

후원금과 라운드 등 연습 환경을 지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안소현(25·삼일제약)이 세종필드골프클럽의 후원을 받는다.

세종필드골프클럽은 21일 안소현과 후원 조인식을 갖고 2년간의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 세종필드골프클럽은 세종시 연기면에 자리한 18홀 규모 대중제 골프장이다.

안소현은 오는 30일 열리는 삼다수제주오픈부터 세종필드골프클럽 패치를 달고 경기한다. 그는 세종필드골프클럽으로부터 후원금과 라운드 등 연습 환경을 지원받는다.

안소현은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이다. 2014년과 2016년 KLPGA 드

림투어에서 우승한 안소현은 올 시즌 정규투어 첫 우승에 도전한다. 최근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는 21위,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에서는 33위를 차지했다.

안소현은 “세종시를 대표하는 골프장에서 좋은 환경 아래 연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기쁘다.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관심 받는 만큼 성적으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전 수원삼성 조원희, 수원FC 플레이 코치로 복귀

경기 뛰는 동시에 선수들 지도 코치 역할

지난해 현역 생활을 마쳤던 조원희(37)가 K리그2(2부리그) 선수를 달리고 있는 수원FC에 플레이 코치로 합류한다.

수원FC는 22일 “여름 이적기간 팀 전력보강 차원에서 조원희를 플레이 코치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원희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뛰면서 동시에 선수들

을 지도하는 코치 역할을 맡게 됐다.

수원FC는 “조원희 영입으로 젊은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원희는 “플레이코치로 수원FC의 승리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02년 울산 현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조원희는 지난해 3월 수원 삼성에서 은퇴했다.

조원희는 은퇴 전 K리그의 상무, 수원, 경남, 서울 이랜드FC 등에서 뛰었고 잉글랜드와 중국, 일본 등 해외무대 경험도 풍부하다.

2005년에는 국가대표로 처음 선발돼 이듬해 독일에서 열린 국제 축구연맹(FIFA) 월드컵에도 출전 한 바 있다.